

창조한국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지명대회 후서

67-11-4 일 2:00 PM
이진익
No.

창조한국당

안녕하세요

이 지명대회에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창조의 가치를 내걸고 창당한 창조한국당의
제17대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거침없이 권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약속을 이행, 장녀

저는 지명 영광이요입니다. 정치인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3~4년간 동안 국민에게 해마다 희망레안은 제시하고
희망포럼과 특히 여성에게 54조를 소개를 꾸준히 해온
희망포럼을 함께 하면서 알게된 문국현 후보의 적극적이고
지치지 않는.

→ 이번 대선에서 활약을 하고 선행할수 있는 (헌법개정)
문국현 후보를 창조한국당이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지명할것으로 판여
창조한국당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대합니다
창조한국당
이진익
후보지명
후보지명
후보지명

Date

정말 TV로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느낌이 다를 것 같다

No. 2

우리가들이 추구한 목표를 지극히 이치는
다양한 것들. (다양한 언어, 문화, 인종, 지역)
그것이 경쟁력, 공익성, 또한 인종과 Leadership 향으로 이어진다.

최고에 도달하는 것은
다들 12월 19일 무렵에는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념을

인종 인종을 뛰어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경제, 사회, 학제, 법제도, 환경 등 다양한 문제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체계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바로 힘이다.

가장 힘을 더해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이며 우리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다.

Date

어떤사람은 섹터처럼 등장한 문후보들 두고
조미 유는 후배라고 하는데.

② 조미연
Leadership

지난 20여년간 시민사회적 자라온 문후보들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는 정후보 입후박은

이 나라를 잘게 쪼개 버린, 국민모두를 함께 걱정할 나
치로써 풍요로운 사회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한기애의 CGO로서 문후보의 어떤 시민사회의
입후박으로서 조미연 후배를 위해 또 Leadership으로

생애가 남기고, 모든사람이 행복증하게
행복을 느끼며,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사회 만들기이 이 나라 하는 Leadership으로
조미연 후배라고 할수있음.

특히나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은 장기간에, 시장에는 해설의 ^{이름} 이름을 후보라고
 기록이 ^{있음} 있음이라 하네.

문제로, 지금까지 ^{집중된} 집중된 ^{이름} 이름으로
 무등, 비리, ^{집중된} 집중된 ^{이름} 이름 등 ^{중립적인} 중립적인 ^{이름} 이름 부활을 위한
 기록이 ^{있음} 있음이라.

집행이 ^{정확한} 정확한 ^{관료} 관료라고 ^{향상} 향상이 ^{가능} 가능하다고 하네

이름으로 ^{부활} 부활에 ^관 관하고 ^{있음} 있음.

우리가 ^{향상} 향하고 ^{있는} 있는 ^{이름} 이름을 ^{향상} 향하고
^{이름} 이름 ^{향상} 향하고 ^{있는} 있는 ^{이름} 이름
^{이름} 이름 ^{향상} 향하고 ^{있는} 있는 ^{이름} 이름.

그리고 ^{향상} 향하고 ^{있는} 있는 ^{이름} 이름

지리점을 놓이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수단을 줄
경비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공배치의 혜택을 크게 받아 북한에도 알지 못함.

앞에서 인공의 현상이
비밀등의 폭로위주, 신변위주이다 보니 비정상적인 것이 사실이다.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면 Leadership을 지닌
문후보의 인공배치의 기회를 적어도 인공배치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전국에 분포한 것은 사실이다.
앞에서 시범적으로 문후보의 분포를 보자
한지도는 놓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위문후보의 수는 문후보의 수에 따라 Date 할 수 있다.

함께 가는 꿈을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창도현중학교 제17대 대흥장후보들
지명받은 지체이며 꿈의 대로의 승리를 기약하는 자리로서
이내내 희망하는 새기풍을 여는 출발점으로

학생의 후복이 같이 내기를 기원하고
이 지명까지 개회한 내시점 축하하며 축하합니다.

창조한국경제 1세대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중서

[illegible]

02062554444? 0122100 4770 31044 영랑하루

대한민국 재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창국한국당의 제1기대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를 개최한데 뜻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저는 지금 평당인이 아닙니다. 36차년도 아닙니다. 다만 지난 3~4년 동안
해마다 국민에게 희망제안을 해오고 있는 사회경제의 원로들로 구성된 <희망토론회>
라 부를 사회학 앙제인 이종, 이승, 장대우 등에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미래토론회>에서 문화평화를 함께 하면서 그간 펼쳐진 지도력에 매료된
문화평화회의의 정경적인 지지자입니다.

2. 이 조항이 법원은 기판의 3위 제한된 표현으로서는 적당하기 어렵다.

이런 대안에서 주저없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후보를 지명하여도 장로회중앙회에 감사드리고 있어야 한다.

공약임에도, 많은 인품의 Leadership으로 이루어짐.

지식백화사의 100부호를 취득한 지 9년째에 제1기 받은 기량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다들 잘 아는 사실이고, 그 후로는 계속 있는 새로운 내용을 더 늘려서 2기로 전환한다는 것이 있다.

[illegible]

창조자의 사랑을 우리 주(主)에 부쳐 회개함을 위해 들을 권유하는 성경을
읽고,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감히 들을 권유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같이 회개하여 우리에게도 행함이

이런 사람은 해방취업, 선택취업 등 각종 무주택임대주택 지원금 후보라고 하는데, 지난 20여년 동안 시민사회가 지켜본 무주택임대주택 2종만 대항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이니셜을 달기 싫은데다 이런 한기애의 CEO로서 별다른 대안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는 힘의 다함은 지극히 아쉽다.

공동체 생활이 넘치고, 모두가 평등하게, 평화를 누리며, 더우려 각자는
문화적 향유에 이바지하는 지로움을 지닌 문명사회로 거듭나게
하는데 힘쓰고 있다.

혹자는 암세포를 몰아내는 장암하면, 저장하면 허브리 못한 후로라고
검증이 어려워서 리기로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증되었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보면, 우등, 버리, 잘못된 행동으로 증명된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검증이 어려우나?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요,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새 세상을 위대한 사건으로 만들고 있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를 위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가 우를 위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국내에서 지리점을 높여주는 평등한 인자로써 나타나는 것을 꼭꼭 지켜야.
그것은 분명히 언론개혁의 해답을 얻지 못하는데 있겠음.
그런데의 오늘이 현실은 어떠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화 되고 있는 것이
언론이 생리라는 것만 바리독후회, 사관취지에 하위하고 어느 상황에서
정상적이고 주권을 잃은 시민을 몰락으로 언론노릇이 적당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의 강연리제를 찾아야 할 것 같음. 여기에 무엇이든
당연히 언론의 권리에 대해 있는 모든 지리점이 오늘 이 때를 기점으로
으로 무조건 몰락후보로 언론들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 우리 모두가
자기 작은 언론후보로써 사회에 나서야 할 것임. 오늘의 지리점으로
몰락후보를 꼭꼭 지키고 제고행임을 관습이 내는 것임.

함께 가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함. 오늘이 아니라 항로한국당의
제 1기 대 총령 후보를 지명하는 자리이며 금번 대선과 승리를 기약하는
지리점 이념에 희망찬 새시점 등 예는 중점적으로 하려는 축복이
같이 하기를 기원하고 다시금 지방대처 거처를 축하 함.

①

<창조한국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축하>

07-11-4 2:00 PM

이원미영숙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재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창조한국당의
<제17대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당인이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다만 지난 3~4년 동안 해마다 국민에게 희망제안을 해오고 있는 사회각계의 원로들로 구성된 <희망포럼>과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장애우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미래포럼>에서 문국현 후보와 함께 하면서, 그가 발휘한 지도력에 매료된 문국현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자입니다.

오늘 이 순간의 벅찬 기쁨은 저의 제한된 표현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한가지만 추가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주저없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씀과 그러한 후보를 지명하여준 창조한국당에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책일수도, 공약일수도, 또는 인품과 리더십일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MBC 100분 토론>을 지켜보면서 제가 받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가오는 12월 19일을 <부패없는 세상을 여는 날>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을 펴드는 순간 그 생각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온통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장식되어있는 정계, 재계, 학계,

2

법조계, 행정계 등 어느 한 분야도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총체적인 부패극면에 직면한 우리의 상황이 비참함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하얏기 대변인*

또 하나의 비극은 우리 주변에 부패척결을 위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히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문국현 후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희망이며 우리에게는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혜성처럼, 섯별처럼 등장한 문국현 후보를 두고 준비 없는 후보라고 하는데, 지난 20여년 동안 시민사회가 지켜본 문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 위해 활동했다는 징후를 *vs* 찾지 못했지만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사람이 중시되는 사회,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한 기업의 CEO로서 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문국현후보* 혼신의 힘을 다해온 지도자입니다.

생명이 넘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평화를 누리며,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하는 지도력을 지닌 문국현 후보는 착실하게 준비된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문후보는 장관한번, 시장한번 해보지 못한 후보라고 검증이 안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검증되었다고들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무능, 비리, 잘못된 정책 등으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검증되지 않았나요?

실패의 경험도 관록이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새 세상을 위해서는 새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문국현 후보입니다.

③

주변에서 지지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걱정들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언론매체의 혜택을 받지 못한 데서일 것입니다.

그 언론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비정상적인 사실이 기사화되는 것이 언론이 생리라고 하지만 비리폭로 위주, 사건 위주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온 문후보의 언론노출이 적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당면 과제를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당원 여러분들과 흠어져 있는 모든 지지자들이 오늘 이 대회를 시발점으로 모두가 문국현 후보의 분신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작은 문국현' 후보로서 세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문국현 후보를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창조한국당의 제17대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자리이며 금번 대선의 승리를 기약하는 자리로써 이 나라에 희망찬 새 지평을 여는 출발점으로 하늘의 축복이 같이하기를 기원하고 다시금 지명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